

아름다운동행, 프로와 함께하는 자선 골프대회 개최

자선 골프대회 수익금 전액 아프리카 학교건립 기금으로 사용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은 불교포럼(상임대표 김동건)과 '양용은 프로와 함께하는 아프리카 학교건립 기금 마련을 위한 자선 골프대회'를 지난 10월 23일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더스타 휴 골프&리조트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아프리카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품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아프리카 농업기술고등학교 건립 기금 마련을 위한 자선 행사로 양용은 프로 골프의 재능 기부로 진행되었으며 불자 지도자와 기업인 130여 명이 참가했다.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 해일스님은 아프리카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통해 희망과 행복을 안겨주고자 마련된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며 개최를 알렸다. 이어 양용은 프로와 불교포럼 김동건 대표의 시타 세레머니로 시작된 자선

골프대회는 4인 1팀으로 총 31개 팀이 구성되어 진행됐으며, 양용은 프로와의 대결 이벤트와 함께 기념사진 촬영의 시간이 주어졌다.

이사장 자승스님은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학교를 건립하기 위해 함께 한 분들의 의지와 뜻이 아프리카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품고, 교육의 기회를 줄 수 있는 행사가 되어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기념사를 남겼다. 양용은 프로는 "아름다운동행과 자선 골프대회를 하게 돼 기쁘게 생각하며 아프리카 학교 건립에 도움이 될 수 있어 좋은 계기가 됐다"며 "나눔을 실천하는 일은 도움을 받는 이들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 좋은 일이기 때문에 많은 분과 함께 뜻깊은 일에 동참할 수 있어 보람을 느꼈으며, 앞으로도 좋은 일에 함께하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날 자선 골프대회를 위해 KB금융그룹에서 1천5백만 원을 기금 후원했으며, 테일러메이드 코리아, 르꼬끄 스포르티브, 교촌치킨, 오라클라보케어, 네슈라 등의 기업에서 의류 및 골프용품, 화장품 등을 협찬했다. 우승자에게는 청파요에서 기증한 청파이은구 선생의 도자기가 시상품으로 제공되었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경품들을 줬다.

또한, 많은 이들이 자선 경매에 참여해 활발한 나눔 활동이 펼쳐졌고 마지막에 가수 안치환 씨의 공연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참가비 및 자선 경매 수익금 전액은 아프리카 학교건립 기금에 사용될 예정이다. www.thenanum.org



봉녕사 '세계 사찰 음식 대향연' 불심과 정성 가득한 사찰음식들 선보여

▼ (좌)사찰음식전사-대만(남팔쪽) (우)학인스님 다도 시연



10월 4일부터 이틀간 아름다운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수원 광고산 아래 봉녕사에서 제5회 '사찰음식 대향연' 잔치가 벌어졌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제 행사로 승격되어 세계 불교국가의 사찰음식이 한 자리에 모였다. 한국을 중심으로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 등 남방 불교권과 티베트, 부탄, 네팔, 몽골 등의 금강승불교 등 서로 다른 불교 전통의 사원에 어떤 사찰 음식문화가 있는지 함께 살펴볼 기회가 된 것이다.

첫날 맛있고 정갈한 음식 외에도 다양한 불교 행사들이 함께 진행되어 사찰을 찾는 사람들을 즐겁게 했다. 사찰음식 경연대회 시식 및 평가회를 시작으로 비빔밥 퍼포먼스와 사찰음식 강좌, 다도 시연, 탁발순례 등의 행사가 이어졌다. 절제미를 보여주는 스님들의 붓다 요가 시연, 가슴을 울리는 법고시연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함께한 산사음악회는 사찰음식 대향연이 단순한 사찰 음식 행사가 아니라 불교문화를 아우르는 총체적 행사임을 보여주었다. 특히 발우를 들고 봉녕사 경내를 순례하는 탁발순례는 음식을 대하는 수행자들의 엄숙한 태도에 숙연함을 느끼게 했다.

경내 곳곳에 마련된 세계 사찰음식 체험부스에는 세계 7개국의 사찰음식들이 전시돼, 관람객들에게는 세계 사찰음식의 진수를, 다문화가정에는 고향의 맛을 선사했다. 각국 스님과 이주민 불자들이 함께 만든 전통음식은 참가자들에게 높

은 인기를 끌었다. 다양한 체험 행사도 시민들의 발길을 잡았다. 단주, 연꽃 컵등 만들기, 꼬치 만들기, 무채 가늘게 썰기, 떡메 치기, 투호 던지기 등 다양한 놀이에 참여한 사람들은 한껏 즐거워했다. 사찰음식을 집에서도 즐기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사찰음식 및 천연재료 판매, 사찰음식 뷔페 등 다채로운 부스도 마련됐다. 사람들이 사찰음식과 함께 다양한 불교문화를 흠뻑 섭취하는 시간이었다.

축제 이틀째인 5일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찰음식 교육을 담당할 사찰음식 교육관 '금비라'의 개관식이 있었다. '금비라'는 약사십이신장의 하나로 꼽히는 불법의 수호신인데 맑고 깨끗한 사찰음식을 섭취함으로써 맑은 지혜가 생기고 반야를 수호하는 약사선신의 옹호를 받는다는 의미를 가진 것이다. 사회적으로 건강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수행식이면서 자연적인 사찰음식을 대중화하고 건강한 식문화를 시민들에게 보급하기 위한 목표로 사찰음식 교육관 '금비라'를 개관한 봉녕사는 앞으로 교육을 통해 전문 인력을 배출하여 국내 및 해외를 대상으로 사찰음식 보편화와 세계화의 작업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동원스님, 정관스님이 강의를 담당하며 3개월 과정으로 초급반, 중급반으로 진행된다. 봉녕사는 올해 조계종 문화사업단에 의해 사찰음식 특화 사찰로 선정되었다.

봉녕사 www.bongnyeongsa.org

부안 개암사, 외국인 요리사 초청 불교문화 체험

“원더풀!” “트레 비앙!” “한하오!”

막 찢낸 떡으로 문양을 찍어 내던 외국인 요리사들은 저마다의 언어로 감탄을 자아냈다. 싱싱한 찻잎들이 무성한 파란 차밭에서는 가슴을 활짝 열고 싱그런 향기를 맡았다. 자연과 자신이 일체임을 느끼며 하나 하나의 음식들에 감사함을 갖는 발우공양을 할 때는 엄숙하고 진지했다.

외교부가 주최한 K-FOOD 월드 페스티벌에 참가한 해외 요리사들이 변산 부안의 개암사(주지 재안스님)를 찾았다. K-FOOD 월드 페스티벌은 지난 6, 7월 미국, 프랑스, 중국, 멕시코 등 세계 10개국에서 한식요리 예선전을 거쳐 선발된 10인의 K-FOOD 도전자들이 경연을 펼치는 외국인 대상 한식 요리 경연대회다. 이들은 전북 전주에서 개최된 K-FOOD 월드 페스티벌 최종 결승전 참가를 위해 8월 11일 한국을 방문하고 6박 7일 동안 서울 투어와 함께 전북 일대의 명소를 돌아보던 중 개암사를 방문하게 된 것. 미국, 프랑스, 중국, 멕시코 등 세계 10여 개 나라에서 온 요리사들은 한국의 전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고즈넉한 사찰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에 감탄했다. 그리고 역시 요리사들답게 불교문화의 전통을 간직한 사찰 음식문화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직접 찻잎을 따고 만드는 과정을 체험하면서 끊임없이 묻고 얘기를 나누었다. 더 많이 알고 배워서 앞으로 자신들의 요리에 어떻게 멋지게 응용할 수 있을지 욕심을 내는 모습이랄까.

그런데 이들의 방문이 뜻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다. 템플스테이 체험법인 개량한복을 입고, 법당을 참배하고, 개암사 녹차밭에서 찻잎을 따서 차를 만들고, 발우공양



을 체험하는 모습 등이 9월 28일 MBC에서 방영되면서 개암사에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재안스님은 “차밭을 처음 보는 외국인 요리사들이 많았고 발우공양을 하면서 한국의 불교문화에 관심을 보였다”며 “이번 방송이 전파를 탄 후 전국에서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이를 계기로 개암사가 템플스테이 도량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안에 숨겨진 작은 보물 같은 절, 개암사. 내소사 단풍 구경 오시는 길에 원효, 의상이 공부하고, 점찰경의 효조 진표율사를 배출한 부사의 방, 능가산 울금 바위 아래 자리한 개암사 부처님도 뵈고 가시옵소서!

개암사 063-583-3871

◆ 개암사_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 선운사의 말사로 전신인 우금암은 백제 부흥 운동의 근원지였으며 삼한시대에 창건되었다고 하는 전설을 가지고 있다. 개암사가 자리 잡고 있는 변산은 우리나라의 8승지로 손꼽힐 정도로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한다.

동국대 국제선센터, 일반인들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갖춰

한국불교 세계화의 첨병 동국대 국제선센터(선원장 수불스님)가 간화선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위한 다양한 강의를 마련하는 등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먼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에 진행되는 간화선 법회에서는 간화선 수행에 대한 법문과 강의가 이뤄진다. 국제선센터 선원장 수불스님과 김흥근 한국간화선연구소장이 진행하며 육조단계를 다룬다.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토요일 오후 2시의 영어법회(담마토크)와 수요일의 영어 불교강좌가 있다. 특히 영어 법회는 그동안 헝가리 원광사 청안스님, 미국 디트로이트 선센터의 명법스님, 강화 국제연등선원 일조스님, 무상사 대봉스님, 미안마의 아신빠디차스님, 캐나다의 글렌 플린 법사, 프레드 세릭스, 데이빗 메이슨 등 뛰어난 수행자와 재가자들의 깊이 있는 영어법문으로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아왔다.

11월에는 베다 수행자 린 에머슨의 ‘아유르베다, 요가와 마음Ayurveda, Yoga & Mind’ (2일), 독일 불이선원 선원장 현각스

님의 ‘종교를 버려라 Throw away all Religion’ (9일), 윌라번 교수의 ‘조선시대 불교와 유교의 관계 The Relationship of Buddhism and Confucianism in the Joseon period(1392-1910)’ (30일) 등이 펼쳐진다.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시작되는 불교 영어강좌는 2개월 과정으로 필요에 따라 한글과 영어를 사용하여 수업하며 불교의 중요한 개념들, 부처님, 삼보, 삼귀의, 연기, 삼법인, 오온, 십이처, 사성제, 팔정도 등에 대해 설명한다.

마음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선(禪) 심리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스님과 전담 상담사가 배치되어 일상생활에서 겪는 스트레스, 갈등, 심리 문제 등을 해결하고 건강한 본래 모습을 찾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동국대 국제선센터의 모든 프로그램은 동국대 재학생은 물론 일반인도 신청할 수 있다.

동국대 국제선센터 예약 전화번호_ 2260-3891~2

목동 국제선센터, 다문화 가족 템플스테이 후기

“한국의 전통을 배우고 정도 나누어요”

국제선센터(주지 탄웅스님)는 추석에 맞아 10여 개국에서 온 150여 명의 이주여성들을 초청해서 다문화 가족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 이번 템플스테이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산하 4개의 복지시설,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 그리고 양천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진행되었다.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성한 추석 명절이라 해도 고향을 떠나 낯선 타국에 온 이들에게는 고향 생각이 더 간절하게 나는 때이다. 이들의 마음 한편에 자리 잡고 있는 외로움도 털어주고 우리의 고유명절인 추석과 불교에 대해 알려주고자 자리를 마련했다.

오전 11시 7층 금자선원에서 열린 입재식에서 각자 자기 나라 소개를 했다. 10여 개국의 각 나라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 나라말로 인사하며 문화 소개와 자랑을 하면서 꼭 한번 오라고 초청도 했다. 대부분의 참가자가 한국말을 꽤 잘했다.

한국에 온 지 13년이 된 한 주부는 후배 결혼 이민자들에게 자식 생각, 가족 생각하면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다 이겨 낼 수 있다며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 해주면서 열심히 살라고 격려했다. 13년 동안 자기 나라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마음이 찡했다. 일본, 중국,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미얀마, 몽골은 불교가 있어서 그렇지 불자가 많은 데 비해 우즈베키스탄이나 러시아에서 온 이들은 불자가 아니었다.

한가위에 대한 설명과 한가위 때 하는 일과 놀이 등에 대해 설명을 해주었다. 그리고 지역마다 다른 가풍이 있지만,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어야겠기에 차례상 차리는 법도 알려주었다. 송편을 만들 때는 우리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재미있게 나누며 만들었다. 송편을 처음 만들어 보는데도 만두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한국 사람만큼 잘 만들었다. 일부 참가자들은 어린 자녀들과

함께 왔다. 아이들도 여러 가지 색의 송편과 연꽃 컵등을 만들 때는 무슨 놀이시간으로 아는지 아주 재미있어했다.

한글과 팔만대장경에 대한 시청각 교육은 효과가 좋았다. 한 사람도 해인사를 가본 사람이 없었는데 이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한국의 불교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고 했다. 다음에는 이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가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한글을 배우고 있는 처지라 그런지 한국어에 대한 시청각 교육이 아주 마음에 와 닿았다고 했다. 이날 본 영상은 세종대왕의 한글창제와 한글의 구조에 대한 것이었다.

회향식은 2층에서 했는데 법당에 들어서자마자 모두가 법당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감탄했다. 회향식 때 퀴즈대회를 했는데 입재식 때 설명한 한가위와 차례상 차리기, 시청한 영상물에 대한 내용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었다. 문제마다 상품권이 있어서 이에 대한 경쟁이 치열했다. 집으로 돌아갈 때는 참가자가 만든 송편을 예쁜 케이크 박스에 담아주고, 기념품, 자신들이 만든 연꽃 컵등, 기념엽서 등도 챙겨줘 받아가는 손이 한가득 푸짐해 보여 보내면서도 흐트했다.

이 행사를 통해 결혼이민자들의 힘든 마음을 털어주고 나와 내가 둘이 아니고 하나임을 인식시켜주고자 노력했다. 이들이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잘 살기를 바란다.

행사가 잘 봉행되도록 도와준 많은 봉사자 덕분에 뜻깊게 마무리되었다. 봉사자들은 힘들었지만, 너무나 보람 있었고 말했다. 마치 자기 일처럼 적극적으로 도와준 그분들께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글_ 목동 국제선센터 국제차장 천조스님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 베품을 통해 깨달음으로 가는 보살운동 펼쳐

순수 재가불자 NGO단체인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공동대표 남지심, 김재영 이하 ‘수레꾼’)이 창립 4주년을 맞이하여 “수레꾼의 밤” 행사를 10월 22일 오후 7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가졌다. 그동안 학교가 없는 캄보디아 농촌 지역에 초등학교를 짓고, 우물도 파고, 무료 교복도 나눠주고, 중학교도 세우고,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등 정신없이 뛰어오는 동안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수레꾼들이 모여 서로 격려하고 앞으로의 활동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수레꾼’은 매우 독특한 단체이다. 관계하시는 스님 한 분 없이 순수하게 재가신자들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운영도 재가불자들에게 의해 이루어진다. 재정도 매달 1만 원씩 후원금을 내는 회원들에게 의존하고 있다. 그럼에도 소리 없이 많은 일을 이루어 내고 있다.

수레꾼의 첫 시작은 캄보디아 땀뿔디봉 마을에 초등학교를 짓는 일이었다. 이 마을은 캄보디아의 승왕스님이 정부로부터 부지를 불허받아서 집이 없는 농민들에게 땅

을 빌려주고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신생 마을이었다. 그러나 주민 정착의 기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초등학교 설립은 아직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를 알게 된 수레꾼이 학교 설립과 운영 지원을 맡기로 했다. 필요 경비를 모금해서 2008년 초등학교를 지었다. 처음에는 150여 명의 학생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500여 명이 되었다. 마을 가구 수도 100여 가구에서 450여 가구, 주민 수 2,000여 명으로 늘어나 캄보디아의 모범적인 농촌 마을로 성장했다. 작년 2012년, 초등학교에서 30여 명의 첫 졸업생을 배출하는 경사가 있었지만, 상급학교가 없어 모두 교육을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다. 3월부터 8월까지 모금해서 7천만 원을 들여 중학교를 세웠다. 이름도 수레꾼 중학교, 학교에는 ‘수레꾼’의 지원으로 설립되었다는 현판도 있다.

또 다른 곳에 지은 초등학교는 교과서가 없어 교사의 강의로만 수업이 진행되는 사정이라서 교과서 무료보급 운동을 펼치고 있다. 나아가 캄보디아의 실질적인 인재 양

성을 위해 2년 전부터 4년 전액 장학금을 수여하는 수레꾼 장학금 제도를 운용해서 현재 15명의 대학생이 혜택을 받고 있다. 장학금을 받으면 봉사하도록 약속을 받았고 이들은 캄보디아의 수레꾼이 되어 올해 2월에는 농촌 봉사활동을 다녀오기도 했다. 이 봉사활동 비용도 전액 ‘수레꾼’에서 지원한다. 앞으로 가난한 지방 학생도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프놈펜에 대학생을 위한 기숙사도 마련할 계획을 하고 있다.

물 사정이 열악해 진흙물을 그대로 가라앉혀 먹기 때문에 수인성 질병으로 고통받는 학생들과 마을 주민들에게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는 것도 중요한 사업이다. 현재까지 21개의 우물을 파서 기증했는데 이제 10개 정도만 더 파면 물 걱정은 없어진다. 우물파기 작업도 그 지역 마을사람들에게 용역을 주어서 그들의 소득 수단이 되도록 했다. 역시 진심으로 정성을 다하면 다 통하게 되어있는 건 어디든지 같은가 보다. 지난 10월 1일부로 ‘수레꾼’은 캄보디아 외무부로부터 현지 법인으로 인정받았다.

이렇듯 멀리 해외까지 펼친 자비의 손길

이 어찌 국내를 무심히 지나가겠는가. 수레꾼의 국내 봉사단(단장 왕정임)의 활동도 이에 못지않다. 서울 노인복지관 무료급식, 종로노인복지관 무료급식, 종로구청의 다문화 요리교실 ‘요리쿡 조리쿡’을 맡아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40대 이하 청년 봉사단(단장 김정권)은 한솔복지관 어린이들과 함께 독거노인들을 찾아가 봉사하는 등 반기만 하는 봉사에서 벗어나 더불어 사는 봉사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

수레꾼을 처음 시작할 때 가졌던 꿈, 유엔국제기구에 등록되어 국제구호단체가 되겠다는 이들의 소박 하면서도 웅대한 꿈이 언젠가 꼭 이뤄지기를 기원한다.

“우리 수레꾼들은 가난한 이들이 가난을 헤쳐 나오고, 어려운 이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성껏 보살핌으로써 그들이 언제나 마음의 평화와 안락을 누릴 수 있게 되도록 끊임없이 ‘베품 바 없는 베품’을 실현할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는 이 운동을 ‘보살 운동’이라 부르고자 합니다.”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 02-743-6028



- ▶ 후원계좌 월 1만 원 및 특별보시금 입금계좌
농협 : 301-0046-5285-91
국민 : 463501-01-197039
(예금주_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
- ▶ 캄보디아 대학생 4년 등록금 후원계좌
농협 : 301-0086-2746-81
(예금주_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 장학회)

창립 10돌 맞은 지구촌공생회... ‘생명의 우물’ 2,000기의 행복

“함께 꾸민 꿈, 함께 이룬 행복, 새로운 희망을 위하여!”

국제개발협력 NGO (사)지구촌공생회(이사장 율주스님)가 캄보디아 우물 2,000기 완공 및 창립 10주년 기념행사를 2013년 11월 11일부터 15일까지 캄보디아에서 3박 5일 일정으로 진행한다.

12일 오전에는 캄보디아 따께오주(州)에 위치한 프랑빠야 프라우 금산사 초등학교에서 생명의 우물 2,000기 완공행사가, 같은 날 저녁에는 프놈펜에서 창립 10주년 기념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스터디 투어 단으로 후원자, 기자단, 홍보대사 전무송 씨 등이 참가하며, 생명의 우물 2,000기 완공행사는 지역주민들과, 창립 10주년 기념행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축하할 예정이다.

지구촌공생회는 물의 위기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MDGs(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새천년개발목표)의 7번째 목표 ‘지속 가능한 환경보장’에서 ‘2015년까지 전 세계에서 안전한 식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인구의 수를 반으로 줄인다’라는 세부 목표를 세우고 지난 2004년 11월에 캄보디아 캄푹(州)에서 첫 생명의 우물을 건립했다. 캄보디아는 비옥한 농토와 풍부한 자원

을 가지고 있지만, 수도 프놈펜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상수도 시설이 전혀 없었다. 캄보디아 영아 사망률의 80%가 물과 관련된 수인성 질환일 정도로 식수지원이 절실했다. 우물 하나를 건립하면 그 마을 주민 약 100명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지구촌공생회의 생명의 우물은 주민들의 큰 환호를 받았다. 끊임없는 후원쇄도와 주민들의 요청으로 사업을 시작한 지 5년 만인 2010년 1월 생명의 우물 1,000기가 완공되었고, 이 공로로 캄보디아 국왕은 소파라 장관을 통해 율주스님에게 훈장을 수여했다. ‘생명의 우물’ 1,000기를 후원한 주인공은 바로 송명례 후원자(2011년 11월 보건복지부 ‘이달의 나눔인’ 선정)였다. 송명례 후원자는 일생 동안 모은 전 재산 2억 2천만 원을 네팔과 미얀마의 어린이들을 위해 회사해서 당시 큰 관심이 쏠렸다.

버려진 우물 생명의 ‘Good Hands’

캄보디아 현지에는 많은 단체가 건립 후 관리를 해주지 않아 훼손된 채 방치된 우물이 많다. 지구촌공생회는 우물의 단순한 수리에서 더 나아가 정기적인 수질관리,

수량관리에 초점을 맞춰 우물 관리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철저한 관리와 책임의식으로 우물 건립사업에서 타 단체들의 본보기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캄보디아에서 시작된 생명의 우물 건립 사업은 극심한 물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는 몽골과 케냐, 그리고 미얀마(물탱크)까지 이어졌고 이 때문에 약 20만 명이 목마름의 고통에서 해방됐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환경재단, 가수 ‘비’, 한국국제협력단(KOICA), 가수 ‘소녀시대’, 그 외에 많은 개인 후원자들의 든든한 후원과 홍보 덕분에 지구촌공생회는 애초 계획했던 1,000기를 넘어 2,089기(2013년10월 기준)를 건립할 수 있었다.

지구촌공생회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을 역임한 율주스님이 2003년 창립한 국제개발협력 NGO로 종교, 인종, 이념 등의 경계를 초월해서 활동하고 있다. 그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인도, 네팔, 스리랑카, 몽골, 인도네시아, 러시아 연해주, 베트남, 북한 등 아시아 11개국과 아프리카 케냐, 중남미 아이티에서 식수지원사업, 교육지원사업, 지역개발사업, 긴급구호사업 등을



진행했다. 지난 10년 동안 42개의 교육시설을 건립해 5만여 명의 어린이들이 교육의 혜택을 받았으며, 2,129기의 생명의 우물(모터 펌프, 물탱크 포함)을 건립하여 20여만 명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농장 4곳과 저수지 1곳을 구축하여 수확과 자립의 기쁨을 선사했다.

지구촌공생회 www.goodhands.or.kr

남가주사원연합회, 美 교포를 위한 ‘한국문화’ 체험 부스 운영

미국 LA에 거주하는 교포와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국문화체험 행사가 열렸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는 지난 9월 25일부터 4일간 LA 한인타운 내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한인의 날’ 축제에 참가하여 한국의 전통문화와 불교 문화를 알리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로 40회를 맞은 LA 한인의 날 행사는 미국의 교포사회에서 열리는 대표적인 축제이다. 종단협의회 사무처장 각우스님을 단장으로, 남가주사원연합회(회장 묘경스님)와 포교사단 LA지회 등 40여 명의 불자가 연대해 마련한 이번 행사는 첫날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한국불교 홍보 DVD 상

영, 영문 책자 전시 및 열람, 한국불교 사진전, 미국 사찰 소개 등 홍보 부스에서 한국 불교 문화 홍보에 온 힘을 기울였다. 한편, 체험 부스에서는 사원연합회 불자들이 연 등 50개와 연임을 빚었고, 탁본 체험에서는 아이들이 입을 수 있는 흰 티셔츠에 탁본을 떠 선물로 나눠줌으로써 아이들이 무척이나 좋아했다.

둘째 날에는 타인종 사람들과 교포들이 가족과 함께 참여하여 컵등 만들기과 부채에 단청 그리기, 한국 문화재인 석굴암, 집현전, 다보탑 만들기 체험을 했는데, 흡족해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주최 측에서는 가족과 함께 만들고 그리는 모습을 즉석카메라로 찍어 주니 너무나 행복해했다. 각우

스님은 “행사 기간 5,000명이 넘는 한인들이 찾아 성황을 이뤘다. 이를 통해 불자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현지 사찰과 불자간 조직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끝으로 행사를 진행하면서 장소가 협소하여 참선이나 108배 체험을 할 수 없었던 점을 아쉬워했다. 하지만 LA내 23개 사찰

의 홍보를 통해 불자들이 절에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었고, 해마다 좋은 내용과 적극적인 불자들의 동참이 훈훈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또한, 무료 체험으로 진행되었지만, 도네이션(보시)도 흔쾌히 하는 분위기였다. 침체한 LA 불교계가 이번 행사를 통해 활성화되길 기원한다.

글, 고려사 주지 묘경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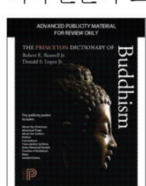
로버트 버스웰 교수, 불교 영어 총망라 ‘Buddhism’ 출간

불교와 관련된 용어를 영어로 총망라한 사전이 나온다. 미국 UCLA 로버트 버스웰 교수(사진)와 미시간대 도널드 로페즈 교수가 10년간 작업한 결과를 담은 <The Princeton Dictionary of Buddhism>이 바로 그것이다. 약 6,000항목에 이르는 불교용어를 깊이 있게 정리한 이 사전은 1,300페이지 분량에 이르는 대작(大作)이다. 특히 불교용어에 대한 영문표기가 상이(相異)해 혼란을 겪는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불교대백과사전’에 해당하는 역작(力作)이다. 그동안 나온 사전에 비해 중국, 티베트, 일본 불교 못지않게 한국불교의 비중을 중요하게 다뤘다는 사실도 주목할 점이다.

보조사상연구원 주최로 열린 구산스님 열반 30주기 추모 학술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로버트 버스웰 교수를 10월 14일 서울 조계사에서 만났다.

불교용어를 총망라한 사전을 펴내게 된 동기에 대해 로버트 버스웰 교수는 “그동안 불교용어에 대한 영문표기가 각기 달라 학자들은 물론 일반인들에게 혼선을 주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그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통일된 용어집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로버트 버스웰 교수는 “영문 표기를 통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면서 “이번에 사전을 펴내는 작업을 통해 나름대로 ‘표준화’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고 덧붙였다.

이달 말 프린스턴대 출판부를 통해 출간 예정인 <The Princeton Dictionary of Buddhism>은 미국과 한국은 물론 세계 각국에서 불교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로버트 버스웰 교수는 “학자들이 깊이 있게 불교를 연구할 때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 사전은 전문학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불교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사

찰 이름이나 스님 법명 등에 사용된 한자의 의미까지 친절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로버트 버스웰 교수는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전통적인 수행법인 ‘간화선’에 대해 외국인들은 무엇을 뜻하는지 잘 모른다”면서 “간화선이 담고 있는 뜻과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고 말했다.

최근 몇 년 새 한국불교계가 시도하고 있는 ‘한국불교 세계화’에 대해서 로버트 버스웰 교수는 ‘불교의 세계화’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추진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면서 “하지만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불교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 세계에 전하는 일에 한국불교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로버트 버스웰 교수와 도널드 로페즈 교수가 발간하는 <The Princeton Dictionary of Buddhism>은 인터넷 사이트 ‘아마존’을 통해 살 수 있다. 이달 말 발간 예정이지만 ‘아마존’에서 미리 예약하면 빠르게 받아 볼 수 있다.

“불교를 학문적으로 공부하는 학자이지만, ‘불교 신도’이기도 하다”며 활짝 웃는 로버트 버스웰 교수는 “불교학은 ‘신심(信心)’이 우러나야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전통 강원의 교재 가운데 하나인 <사집(四集)>을 영문으로 번역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터뷰가 끝난 후 국화축제가 열리고 있는 조계사 마당에서 로버트 버스웰 교수는 “오래전부터 국화를 좋아했다”면서 “조계사 마당을 장식한 국화가 아름답다”고 연신 미소를 지었다.

출처, 불교신문

뉴욕 불광선원 헤민스님, ‘한국을 이끌 차세대리더 100인’의 종교 분야 1위

시사저널-미디어리서치가 선정한 ‘한국을 이끌 차세대리더 100인’의 종교 분야 1위는 미국 햄프셔 대학 교수인 헤민스님(뉴욕 불광선원 부주지)이 차지했다. 지난해까지 종교 분야는 불교·천주교·개신교로 나눠 조사했으나 올해는 통합해 조사됐다. 헤민스님의 경우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불교 분야 2년 연속 차세대리더 1위로 꼽혀, 종교를 통합한 올해까지 합치면 3년 연속 1위인 셈이다. 2위이재훈 은누리교회 담임목사와의 격차도 상당히 심해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국민 멘토로 불리는 헤민스님은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대중과 소통했다. 스님은 진심 어린 대화로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며 대중 가까이 다가선 것이다. 현재 헤민스님의 트위터 팔로워는 58만 명에 달한다. 스님과의 대화에 목말라하던 많은 대중은 줄기차게 ‘강의’를 요청했고, 스님은 전국을 순회하며 ‘마음 치유 콘서트’를 열었는데, 모집 시간 몇 분 만에 마감되기도 했다.

헤민스님은 지난해 1월 SNS를 통해 나는 대화를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에 담아 출간했다. 반응은 뜨거웠다. 국내에서 출간 1년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베스트셀러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으며, 누적 판매 부수 240만 부를 돌파했다. 올 9월에는 세계 최대 출판그룹인 미국의 ‘펭귄’과 헤민스님의 책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영문판 출간 계약을 맺었다. 이번 계약으로 국제무대에 한국 불교 관련 서

적 진출이라는 쾌거를 남겼을 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영국 등 영어권 독자들도 읽을 수 있게 됐다. 이미 2012년 중국, 대만, 일본 세 나라에서도 출판돼 시중에서 판매 중이다. 국내 판권을 가진 출판사 쌤앤파커스는 “불교의 지혜를 보편적 삶의 지혜로 풀어내 일반인들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종교와 세대, 국가와 민족을 초월한 보편성을 보여준 것이 호응을 키운 것 같다”고 밝히고, 문화의 차이를 고려해 헤민스님과 협의 후 원고의 일정 부분을 재편집하여 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계약을 성사시킨 출판 에이전트 에릭양 에이전시는 이번 계약에 대해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리는 데 조금이나마 이바지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하며 출판시장의 진입 장벽이 높은 영미권에 헤민스님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콘텐츠로 진출하면서 그 길을 넓혔다”고 평가했다.

저자 헤민스님은 “이번 판권 수출로 얻는 인세 수익금 전액을 국내 저소득층 아이들과 어르신 무료 급식 단체에 기부할 것”이라 밝혔다. 그간 헤민스님은 복지관, 병원 등에서 위료가 필요한 이들을 직접 만나 기부해왔으며,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아름다운동행’에 인세수의 1억 원과 이동통신 광고 출연료 4000만 원 등을 기부했었다. 현재 헤민스님은 수행하러 한국에 들어와 봉암사 선원에서 가을 산철 결계 중이다.

진기록을 경신하는 것과 관련 쌤앤파커스는 “청년실업 등 어려운 시기에 마음의 위안을 주는 것에 공감한 젊은이들을 두터운 독자층으로 확보한 듯하다”면서 “책이

불교의 지혜를 보편적 삶의 지혜로 풀어내 힐링의 일반인들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종교와 세대 국가와 민족을 초월한 보편성을 보여준 것이 호응을 키운 것 같다”고 밝혔다.

글, 편집부



시카고 불타사, 포대보살 점안 2주년 축하 공연

“평안과 행복은 상대 존중에서 시작”

“누구에게나 부처님 대하듯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면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평안해집니다. 포대보살은 실질적인 인물로서 사람이 어떻게 고통을 나누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보여준 보살입니다. 내가 부처님처럼 되겠다는, 가깝게 가겠다는 상징성을 전하는 보살로 내 마음속에 부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시카고 불타사(주지 현성스님)의 미륵불 포대보살 점안 제2주년 기념 불타 가요제가 10월 26일 오후 불타사 내 보원 관음전에서 열렸다. 가요제에 앞서 무설전에서 현성스님의 안내로 포대보살 친견 및 한국의 산과 사찰, 봄·여름·가을·겨울 4계절 그리고 일주문을 그림으로 그린 벽화에 대해 설명했다.

현성스님은 “사회를 움직이는 것은 마음이요,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믿음이다.”라며 “믿음이 있어야 마음이 움직인다. 믿음이 확고해야 행동으로 나타난다”며 복잡한

현재 삶에 있어 신앙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스님은 “옛날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모이면 노래를 함께 부르며 행복을 나눴다”며 “하지만 이민생활로 바뀐 한인들이 노래를 잊고 살고 있다. 엄마가 노래를 부르면 아이들도 노래를 부르게 되어 가정에 노래가 가득 넘쳐난다. 노래를 부르는 가정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행복하다. 포대보살을 접견하고 노래를 부름으로써 평화로운 삶과 가정을 찾도록 가요제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경연대회로 진행된 가요제에는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20명이 참가했으며, 대부분 가사는 현성스님이 불심을 주제로 작사했다. 대상에는 ‘순결한 사랑’을 부른 홍지안 거사, 어린이부 1등에는 ‘산사의 겨울 새벽’으로 무대에 오른 신윤아 양이 각각 차지했다. 대상에게는 1천 달러의 상금이 수여됐다. **글** 시카고 중앙일보 / **사진** 시카고 불타사

(사진) ① 무설전에서 포대보살 친견 및 벽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② ③ 경연대회 및 장기 자랑 ④ 단체 사진 ⑤ 시상식



애리조나 법흥사, 점안·봉불식 봉행

9월 29일 애리조나 피닉스 법흥사(주지 법연스님)는 점안식과 봉불식을 봉행했다. 지난 2007년 7월 개원한 법흥선원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나만존자 그리고 작은 석가모니불 50분에 대한 점안식이 봉행되었으며, 한국의 내사사 봉래선원 선운장 철산스님을 비롯하여 송광사 한주 법종스님, 약사암 일심선원 수좌 성산스님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점안식과 더불어 애리조나 불자를 위하여 철산스님을 계사로 보살계 수계식도 진행했다. 철산스님은 이날 수계 법문을 통해서 “10계를 받아 지니고 지극한 마음으로 받들어야 한다. 바른 믿음으로 부처님의 진리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면 모든 고통에서 풀려난다. 아집과 편견을 없애고, 무지와



욕망의 고뇌가 사라지면 행복한 삶이 되고 도를 깨닫게 된다.”고 강조했다.

투산 서종사 주지를 겸하고 있는 법흥선원 주지 법연스님은 점안식에 동참한 신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앞으로 한국 불교를 세계 곳곳에 알릴 수 있도록 수행 정진하는 도량으로 가꾸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글 법흥사 법흥선원 주지 법연스님
애리조나 법흥사 +1-480-259-8988

불광사 학술포럼 참가기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이상형은 어떤 모습일까?”

10월 19일 오후 2시에 시작한 포럼은 불광사(회주 지홍스님)의 역사와 더불어 새로운 공간을 마련한 중창 불사 기념으로 주지스님과 신도가 준비한 학술회의였다. 미국, 프랑스, 대만, 미얀마, 태국의 초청강사들이 앞자리를 채웠고, 많은 사람이 국제 포럼을 듣기 위해 동참했다. 먼저 삼귀의와 한글반야심경 독경이 진행되었다. 목탁을 집전하는 신도의 능수능란한 솜씨는 재가불자들의 활동을 엿볼 수 있었다.

2부는 서울대 철학과 조은수교수의 진행으로, 제일 먼저 프랑스에 있는 플럼빌리지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이 있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틱낫한스님이 세운 공동체로 철저히 부처님 경전을 중심으로 평화 속에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다. 발제자 틱찬팍님은 공학을 전공했으며 아시아지부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재가자로 수행을 시작하였고 20년이 넘는 동안 틱낫한스님의 가르침대로 배우고 실천을 하고 있었다.

두 번째 불교 공동체로 태국의 아소카 단체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발제자는 오랫동안 봉사 활동도 하고 대학에서 강의하는 피콜 와니차피차트가 프리젠테이션을 했다. 불교의 오계를 엄격히 지키면서 자급자족의 형태를 하고 있었다. 생물학을 전공한 발표자는 이 공동체의 환경적 요소도 더불어 설명하면서 경제적 구조에 대해 설명을 했다. 그리고 회원은 유기농 물건을 생산해서 그 수익금으로 학교와 병원도 짓고 철저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아이들의 인성 교육에 힘쓰며, 본원은 태국의 동북부에 있지만, 방콕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

세 번째로 발표한 사람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온 스미스였다. 1932년부터 미국의 기독교에서 발생한 웨이커 교도들의 공동체로 불교의 명상도 하고, 공동으로 노동도 하며 잔잔한 활동을 하는 단체이다. 클레이몬트에 본원을 두고 있으며 세계 사람들이 모여 자연주의로 운영하고 있었다.

네 번째로 프랑스에 있는 천주교 테제수도원에 대한 고찰이었다. 발표는 현재

한국인으로 교화한 서강대 안서니 김 교수로 오랫동안 서강대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수사님이다. 이 단체의 특이한 사항은 수사들이 자급자족하면서 일체 선문이나 후원금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백여 명의 수사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고, 여름에는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참가하여 일주일 정도 수사들과 함께 수행하고 간다. 종교, 인종을 떠나 활동을 하고 있으며 비공식적으로 로마교황들과 테레사 수녀도 방문했었고, 현 조계종 자승 원장스님도 방문했던 유명한 공동체이다.

2부가 마무리되면서 패널들의 토론과 질문이 이어졌다. 공동체의 문제점과 한계점에 대해 말해달라는 질문에 대답은 없었다. 모두가 문제점이 있으면 대화와 연습으로 바꾸어 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건전하게 이념과 특징대로 운영되고 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불광사는 공동체를 모델로 삼아 새로운 도약과 나아가 갈 방향을 찾고자 이번 행사를 계획했다는 주지스님의 환영사에서 새로운 희망이 보이는 메시지였다.

이번 포럼에 참석한 사람들은 전문가도 있지만,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고자 하는 분들이 모였다. 각자의 목표에 얼마만큼 다가섰는지 모르겠지만, 함께 참석한 나로서는 참으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하나의 답으로 정의를 내릴 수는 없지만, 종교를 떠나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 것이 참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다시금 했다. 개인주의 사회에서 살다 보니 더불어 사는 이점을 잊고 살 때가 많다. 우리가 소이 말하는 천국이나 극락이 이렇게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며 서로 맞추며 사는 사회가 이상적일 것이다. 달라이라마가 말을 했듯이 이제 개인적으로 성불한 부처가 아니라 공동체에서 그 해답을 찾는 부처가 나와야 한다고 말한다. 도시포교의 모델로 성장하고 있는 불광사의 이번 행사는 참으로 의미 있는 시간을 제공했다. 내가 속한 공동체인 승가의 방향은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까? 우리들의 승가가 개개인의 답을 찾고 화두로 삼아 이 사회에 제시하여야 하지 않을까?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본다.

글 캘리포니아 정원사 총무 형전스님



국제록빠재단Rokpa International : 아무도 돕지 않는 사람들을 돕는다

‘록빠Rokpa’는 티베어로 ‘도움’ 혹은 ‘봉사’를 의미한다. 록빠재단은 1980년에 종교, 국적 문화적 배경에 관계없이 세계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창설된 국제구호조직이다. 본부는 스위스 취리히에 있으며 처음에는 주로 네팔과 티베트에서 활동했으나 현재는 전 세계 20개국에 사무소를 가지고 있다. 기금은 대부분 스위스, 영국, 독일 등의 서구국가들에서 모금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200여 개가 넘는 프로젝트를 수행해오고 있다.

국제 구호재단으로서 록빠는 세계의 가장 외진 곳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른 구호재단들이 활동하기 어려워하는 곳, 정치적으로 민감한 환경에서 절실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일하며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문화적 가치를 존중한다. 지역 사람들이 미처 끝내지 못한 시급한 프로젝트들이 이어받아 계속 진행시키면서 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록빠의 프로젝트는 네팔의 ‘길거리 부업 프로젝트’처럼 몇 달 동안 진행되는 것부터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의 교육 제공을 위해 15년 이상 걸리는 프로젝트도 있다. 록빠의 주요 활동 영역은 다음과 같다.

◇ **어린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교육비를 지원하며 성인 문맹퇴치 프로그램, 교사 훈련, 티베트 교재 출판 등이 포함된다. 매년 중국의 티베트 자치구에서만 만여 명이 넘는 가난한 어린

이들과 청소년들을 교육하는데 특히 소녀들을 위한 교육을 중요하게 여긴다.

◇ **의료서비스** 록빠의 의료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십만여 명의 티베인, 네팔인, 짐바브웨인들이 의료도움을 받았다. 특히 에이즈 감염률이 높은 짐바브웨에 병 어린이 중 한 명이 고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의료처치와 함께 가족 지원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 **노숙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록빠활동의 가장 큰 장점은 사회의 밑바닥으로 내몰린 사람들에게 절실한 도움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카트만두의 노숙인들과 중국의 티베트자치구 지역의 거리 어린이들을 위해 겨울에 ‘길거리 부업’을 운영하는 것, 2010년 유수지역의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시 신속한 응급 구호 활동 등이 그 예이다.

◇ **여성들을 위한 작업장 운영** 미혼 여성, 혹은 버림받은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직업훈련과 일자리를 제공한다.

◇ **소액 대출** 기술을 가진 장인들에게 창업 자본을 대출해줌으로써 가난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첫 토대를 제공한다.

◇ **환경보호활동** 생태계의 균형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조림사업을 실시한다. 또한 지역 주민들이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생계를 꾸려갈 수 있도록 교육한다. 중국 티베트자치구의 희귀 약초재배 개발, 짐바브웨의 채소밭 가꾸기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록빠재단 www.rokpa.org



아프리카 최초로 국제불교영화제 열려

아프리카 최초의 국제불교영화제가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개최되었다. ‘의식 탐구 영화 회 Exploring Consciousness Films’가 주최했으며 다양한 불교 전통을 다룬 10여 편의 작품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작품 상영 후에는 제작에 참여한 스태프들과의 간담회가 이어졌다.

폐막식을 장식한 ‘외아들: 젊은이들의 현대적 딜레마 이야기’는 카트만두의 록빠 청소년센터Rokpa Home에서 교육을 받은 네팔소년이 고향에 돌아와 농토를 지키려는 가족들의 요구를 받고 겪는 갈등을 다룬 것이다. 이 영화에 이어 바로 록빠재단의 케이프타운에서의 활동을 소개하는 단편영화가 상연되었다. 록빠 재단은 초제 아공 린포체가 이끌고 있는 국제자선기구로 10월 8일 중국 청두에서의 그의 갑작스런 죽음은 전 세계 불교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영화제 관계자는 오랫동안 후원해



준 아공 린포체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고 그에게 이 영화제를 헌정했다.

영화제는 요하네스버그, 더반 등지에서 10월 27일까지 진행되었다.

Buddhadharma [2013. 10. 16]

김 스탠리 로빈슨, 소소한 일상 생활에서 누리는 수행의 기쁨

나는 유독 신심 깊은 불교신자도 아니고 특별히 종교적인 사람도 아니다. 그러나 불교를 매우 좋아한다. 불교는 내 매일 매일의 일상에 새로운 생각을 하게 한다. 부처님과 대부분의 불교도들이 뛰어난 일상적 수행자들임을 생각하면 불교가 더 좋아진다. 때때로 나는 이런 내 태도를 캘리포니아식, 혹은 히피식, 또는 뉴에이지 불교라고 부른다. 불교가 마치 내 것처럼 느껴져서 나만의 스타일대로 불교를 내 일상 속에서 만들어간다고 할까.

나는 소소한 매일 매일의 생활 속에서 내 감정들을 정리하는데 불교를 활용한다. 나는 이런 내 태도가 선어록에 나오는 ‘말을 멈추고 물을 길어라.’라는 표현에 가장 잘 표현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이 말은 단순한 신체적 반복이 수행으로, 즉 우주는 기적으로 가득 차있고 신성한 것이라는, 삶은 소중하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는 것은 큰 행운이라는 깨달음을 주는 종교적인 수행으로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움직이고, 영구히 지속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한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여기 존재하는 한, 그리고 우리가 당장 큰 고통을 겪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의 삶 속으로 받아들일 아름다움들이 우리의 일상 도처에 있다. 이것들을 가능한 많이, 또 널리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퍼뜨려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내 자신 안에서 스스로 그것을 느껴야 한다.

나는 정원을 가꿀 때, 걷고 있을 때, 달릴 때, 그릇을 씻을 때, 글을 쓸 때, 산을 오를 때, 청소할 때 그리고 친구나 가족들과 얘기를 나눌 때 이런 감정들을 가장 많이 느낀다. 그 순간이 지나면 우리는 아무 것도 잡을 수 없다. 우리의 삶조차도 지나가 버린다. 단순한 동작이 이런 종교적인 수행으로 전환되면서 우리는 삶을 향해 사랑을 느끼게 된다. 삶을 소중하게 여기는데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 나는 이런 깨달음을 선(禪) 의식이라고 부른다. 내가 아직 젊었을 때 불교에 대한 글들을 읽고 이와 같은 사고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한다. 이것들이 내게 평정과 기쁨을 주었고 앞으로로도 그러리라고 믿는다.

Shambhala Sun [2013.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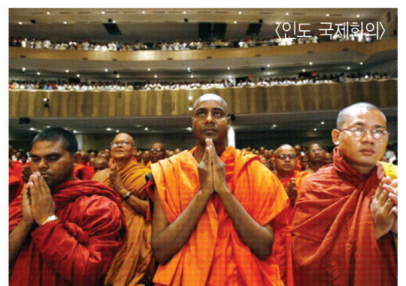
- SF작가인 김 스탠리 로빈슨은 여러 상을 수상했으며 최근에 '무당Shaman'을 출간했다.

국제사회에서 불교 역할 강화를 위한 기구 출범

뉴델리, 인도 - 주요 국제적인 문제에서의 불교의 영향력 증대 방안을 모색하는 국제회의가 개최되었다. 9월초 뉴델리에서 열린 ‘제 1회 국제평화와 불교를 위한 국제불교회의’에 참석한 33개국 불교계 고위 지도자들은 새로운 국제기구 발족에 합의하고 자신들의 단체를 등록시키므로써 전 세계에 걸쳐 활동 영역을 갖게 되는 거대한 불교 연합 기구를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롭상 라마는 각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불교 단체들이 힘을 합쳐 하나의 통일된 단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합의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짐에 따라 새로운 불교 연맹체가 필요해졌다고 말했다. 이 회의는 또한 종교의 자유, 종교간의 갈등, 환경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특히 모든 불교 전통에서의 비구니 수계가 허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도 전역에 흩어져 있는 불교유적지의 보호와 이를 위한 성지순례도 주요 활동으로 결의했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할 일은 인도의



여러 지역에 있는 역사적 유적지들의 보존입니다. 여기에는 수행자들이 명상 수련을 했던 동굴들도 포함됩니다. 이런 동굴들이 적어도 100여 개가 넘습니다. 이 고대 불교유적지들은 보호받고 보존되어야 합니다.”

이 국제적인 불교 기구의 창설은 그간 국제 불교사회에서 상대적으로 미약한 위치에 놓여있던 인도가 불교 종주국으로서의 자리를 다시 찾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새로운 기구는 뉴델리에 기반을 두고 있는 비정부 불교단체인 아쇼카재단(Ashoka Mission)에 의해서 운영될 것이다.

VOA News [2013. 9. 25]

인도의 불교 르네상스 운동

뉴델리, 인도 - 1956년 10월, 수많은 불가촉천민들이 힌두교의 카스트제도를 벗어나려는 희망으로 암베드카르와 함께 불교로 개종했다. 그 후 수백만 명의 불가촉천민들이 계속 불교로 개종하면서 불교는 그들의 아픔을 보듬는 안식처가 되어 왔다. 오늘날 많은 불가촉천민들은 부처님과 암베드카르의 사진을 집안에 모시고 있다. 가난하고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어도 이들은 불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공정한 사회를 이룩하고 부처님 말씀을 더욱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러 곳에 사원과 명상 센터를 세우고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에 참여한다. 젊은 세대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암베드카르가 주장한 사회 정의와 개인의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들은 이러한 평화로운 불교혁명을 통해 생활조건을 개선하고 인도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권을 구현함으로써 카스트의 억압을 벗고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누리고 살기를 기대한다. 확고한 불교적 이상을 토대로 사회 프로그램, 의료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인도 전역에 청소년 센터와 주민자치센터를 세우고 있다.

암베드카르는 불교의 가르침과 가치관만이 인도사회를 비폭력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믿었다. 그의 추종자들은 영적 수행을 바탕으로 개인의 성장과 사회변혁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이루려고 노력한다. 이를 위해 어떤 그룹은 불교적 가르침의 전파와 수행에 집중하기도 하고 또 다른 그룹은 공동체 조직, 사회적 활동과 교육 등에 보다 힘을 쏟는다. 여기 불교르네상스 운동을 이끌고 있는 단체들을 소개한다.

◇ 나가로카 센터

나가푸르 근처에 자리하고 있으며 2001



년부터 명상 수행, 불교 교육, 공동체 조직 등에 관한 10개월 과정의 기숙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600여 명의 학생들을 배출했다. 나가로카는 또한 많은 국제회의가 열리는 곳이며 달라이 라마, 틱낫한 등과 같은 유명한 불교지도자들이 이곳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했다. 매년 수천 명의 순례자들이 이곳 교정의 '걷는 부처님' 동상을 참배한다.

◇ 트리라트나 부다 마하사가

1972년 이후 명상, 불교 강좌, 공개 강의, 건강센터, 학령 전 아동을 위한 시설 등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다. 전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트리라트나 부디스트 종단의 부속기관으로 개인과 사회의 변화를 통해 암베드카르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전국 청년불자 네트워크

카스트제도를 초월해서 가난한 젊은이들이 모여 교육, 포괄 지원,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삶을 추구하는 상호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이다.

◇ 청년불자회

1986년에 설립되어 영세한 마을의 빈곤과 사회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풀뿌리 비영리조직이다. 법회, 교육프로그램, 평화 행진, 마을 회관 설립 등을 후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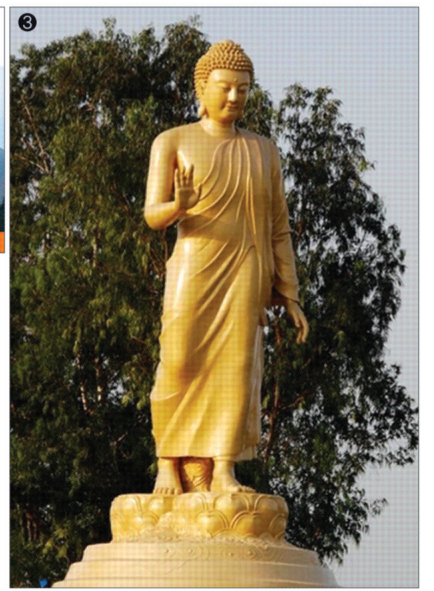
◇ 마누스키 인스티튜트

사회개발프로그램 운영과 차별에 대한

법적 활동을 통해 카스트제도의 장벽을 넘어서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또한 불가촉천민 여인들의 리더십 함양과 다른 불가촉천민 그룹이나 조직들과의 연계활동을 모색하고 있다. 불가촉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극단적 폭력사태에 대해 국제적인 관심을 이끌어내는데 성공적인 활동을 했다.

Diksha Bhumi, The Buddhist Channel

[2013. 10. 24]



티벳 불교와 에모리 대학의 합동 프로젝트

▼ 에모리 대학의 티벳 주간 행사

애틀랜타, 미국 - 양자론에서 세계는 무한한 임의적인 사건들의 산물이라고 말한다. 불교는 어떤 것도 원인 없는 일어나지 않으며 우주는 끊임없는 카르마의 순환이라고 가르친다.

이 둘을 화합시키는 것은 마치 유치원 학생들에게 '신의 입자(히스 입자)'를 설명하는 것만큼이나 힘든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 에모리 대학에서 과학자, 번역가, 그리고 티벳 승려들이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불교-과학 합동 프로젝트에 달라이 라마도 동참했는데 그는 이미 7년 전에 과학과 명상이 결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교는 내적세계에 대해 매우 풍부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현대과학은 물질에 대한 지식이 고도로 발달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따로 떨어져서는 불완전합니다. 함께할 때 외적, 내적 세계가 완전해집니다."

2010년, 6명의 티벳 승려들이 에모리 대학에서 공부하고 돌아가서 동료 승려들에게 과학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에모리 대학의 교수들이 다람살라로 가서 수십 명의 비구와 비구니들에게 강의했고 이들을 위해 15종의 영어-티벳어 과학 교재가 개발되었다. 에모리 대학은 매년 이 프로그램을 위해 승려들의 등록금을 포함해서 모두 70만 달러를 지원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다. 작년에야 비로소 과학과목은 승가교육의 필수과목으로 인정받았다. 600년이라는 긴 승가 교육 역사에서 첫 변화였다. 그러나 보다 섬세한 작업이 아직 남아있었다. 바로 용어문제였다. 티벳어나 문화에는 없는 '광합성'이나 '복제'와 같은 단어들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분자와 화학 합성물에 어떻게 티벳식 이름을 붙일 것인가? 티벳인들에게는 여러 층위의 의미를 가진 'process'와 같은 단어들에 어떤 의미



를 부여할 것인가? 여러 우여곡절과 심의를 거쳐 현재까지 약 2500여 개의 과학 용어들이 새롭게 티벳어에 유입되었다.

이런 상호작업을 통해 티벳 승려와 미국의 과학자들은 자신들의 믿음이나 지식을 상대방의 그것에 투영해 의미를 새롭게 하고 있다. 티벳인들은 분자들이 얼마나 빨리 쇠퇴하는지를 배우으로써 제행무상을 다시 확인한다. 과학자들은 또한 의식의 본성이나 생성 등과 같은 마음의 현상을 심장의 물리적 활동에 연관지어 관찰함으로써 자신들의 연구를 새로운 렌즈로 들여다보게 되었다. 논의는 다양한 주제로 끝이 없었다. 티벳 수도원의 한 승려는 에모리대 교수에게 히말라야가 한때 바닷물로 덮였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냐고 묻기도 했다. 대답은? 물론 화석이다.

이 상호 협력 프로젝트로 얻은 결과물의 하나는 인지작용에 기반을 둔 자비 훈련, 즉 감정입을 증진시키는 명상 프로그램의 개발이었다. 물론 다양하고 실제적인 응용 방법들도 많이 개발되었다.

성폭행을 당한 어린이와 그 가족들을 위해 오랫동안 임상치료를 해온 사회운동가 린다 허튼은 에모리대학의 프로젝트를 보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그들이 당한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마음챙김, 명상, 호흡 등을 활용했습니다. 많은 의학적 연구들을 이용했는데 이곳의 자료들이 훨씬 우수합니다."

Kim Severson, New York Times [2013. 10. 11]

현대기술이 부처님 제자들의 행적을 밝힌다

바사카파트남, 인도 - 현대 첨단 기술을 통해 포교의 길을 떠났던 부처님 제자들의 행적이 보다 자세히 밝혀질 예정이다. 핵 분석기술 Nuclear Analysis Technology: NAT을 이용해서 유적에서 발견된 도자기 유물, 벽돌, 기와, 동전, 회화들을 분석함으로써 천여 년 전 여러 지역을 넘나들며 활동했던 승려들의 행적을 정확히 밝힐 수 있게 된 것이다.

간디기술경영대학의 과학대학GITAM Institute of Science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다사리 키쇼어 바부는 이 획기적인 연구는 트롬베이의 바바 원자연구센터, 물리연



(간디기술경영대학 과학대학)

구소, 고고학&박물관학과, 그리고 안드라 프라데쉬주(卍) 정부 등 여러 관련 기관들과 긴밀한 협조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많은 승려들이 여러 지역에서 포교활동을 벌였던 것은 잘 알려져 있지만 정확히 어느 시기에 어떤 길을 통해 그들이 이동했는지는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 바로 이것을 밝혀내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며 특히 핵과학을 이용, 과학적인 증거를 수집함으로써 그들의 활동 범위와 시기에 대해 명확한 지도를 그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고학 관련자들은 현재 포교승들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도자기나 그 명문들을 BC 4세기로 추정합니다. NAT가 이 사실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새로운 시도는 4년 전 안드라 프라데쉬 지역의 출토 유물들을 분석하는 작업으로 시작되었으며 앞으로 3, 4년 후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V Kamalakra Rao, TNN [2013. 9. 27]

▶ 6~7면 번역은 현재 국제포교사회에서 활동하고있는 하양자님이 맡아주었습니다.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네팔에 펼친 자비의 손길 '나마스떼 네팔 & 코리아'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상임대표 도제스님, 이하 마주협)는 지난 10월 3일~10월 12일, 8박 10일의 일정으로 네팔 국외봉사를 진행했다. 이번 국외봉사는 2011년 스리랑카, 2012년 베트남에 이어 3년 연속 진행된 사업이며, 마주협의 회원단체인 한국YBA와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의 협력, 안전행정부의 후원으로 총 45명의 봉사단을 꾸려 봉사활동을 다녀왔다. 봉사단은 총 2,000여 명의 환자를 치료하고 화장실 신축 및 시설 개보수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원만히 회향했다.

네팔은 부처님의 탄생지이자 신들의 정원 히말라야가 펼쳐진 아름다운 대자연의 나라지만, 현실은 아시아 최빈국 중 한 곳이다. 봉사단은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서 6시간을 달려 120km 떨어진 해발 2,600m의 산간마을인 무데(Mudhe)에 도착했다. 무데 스리나갈데 고등학교를 거점으로 의료봉사와 학교 시설 개보수, 마을 시설 보수를 진행했다. 봉사 장소에 도착하자 교직원과 전교생들은 환영의 까닥을 걸어주며, 이 마을에 처음으로 찾아온 의료진과 봉사단을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봉사단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 ① 까닥을 걸어주며 환영해주는 모습
- ② ③ ④ 의료진료 모습
- ⑤ 도제스님께 감사장을 전달하는 스리나갈데 고등학교 교장선생님
- ⑥ 부사베다 마을 초등학교 노란 문과 창문 설치와 벽 칠로 새 단장한 학교
- ⑦ ⑧ 페이스페인팅과 컵 연꽃등을 만들고 좋아하는 학생들
- ⑨ 카트만두 awareness center 근처 마을 공동화장실 개보수와 페인팅, 벽화로 새 단장한 모습
- ⑩ 부사베다 마을 수도배관 공사 후 물이 나오자 기뻐하는 마을 사람들
- ⑪ 진지한 눈빛으로 기증된 컴퓨터를 사용해 보는 학생들
- ⑫ 스리나갈데 고등학교에 새로 지은 화장실



무데에서 2박 3일의 일정으로 진행된 진료는 1년에 한 번 병원에 가기도 쉽지 않은 주민들에게는 더욱이 절실한 기회였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무데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마을에서도 한국에서 의료진이 왔다는 소식을 접한 주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밀려드는 환자와 함께 한정된 기간과 의료장비의 부족으로 더 많은 환자를 치료하지 못한 봉사단의 아쉬움이 교차했다. 의료진료 외에 문화교류 활동으로 진행된 연꽃등 만들기는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고 페이스 페인팅과 종이접기 등으로 즐거운 교류활동을 진행했다.

무데에서 1,400여 명의 진료 실적을 올린 의료 봉사 활동과 더불어 다양한 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했다. 환경 개선사업은 현지 주민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현지의 요구를 반영한 화장실 신축, 컴

퓨터 기증, 상수도 시설 보수사업을 선정·진행했다. 우선 무데 스리나갈데 고등학교에는 저학년 학생들을 위한 깨끗한 화장실을 새로 신축했다. 무데에서 비포장도로로 반나절이나 가야 하는 오지 부사베다 마을에서 42가구 200여 명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도배관 19개를 수리하여 1년여간 고생한 마을 사람들의 식수난을 해결해 주었다. 또한, 이 마을 초등학교에 창문 42개와 6개의 문을 달아 안전한 공간에서 공부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교 임직원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들의 근심을 덜어주었다. 무데와 부사베다 마을 중간에 있는 또 다른 마을 투로다딩의 고등학교에는 봉사단으로 참가한 윤동년 보살의 후원으로 컴퓨터 5대를 기증하여 300여 명의 학생에게 새로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뜻깊은 시간도 가졌다.

무데에서의 봉사활동을 성황리에 마무리 짓고 카트만두에서는 불자들의 수행공간인 Awareness center에서 2일간의 의료봉사와 마을 공동화장실 보수 공사를 진행했다. 연이은 강행군이지만 몰려드는 환자들을 위해 구슬땀을 흘려가며 애쓴 덕분에 이틀간 약 600여 명의 주민을 진료할 수 있었다.

봉사단의 노력과 열정이 모여 이번 국외 봉사 전체 기간 중 총 2,000여 명의 주민을 진료하는 성과를 낼 수 있었다. 마을 공용 화장실이 깨끗하게 보수되고 벽에 그려진 활짝 핀 연꽃이 늘 마을 주민들과 함께하듯, 네팔 주민들의 맑은 미소로 우리 마음 속에 그려진 연꽃의 그윽한 향기는 오래도록 남아있을 것이다.

나마스떼!!